



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슈퍼스톰 샌디 10년을 앞두고 기후 변화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 설치 발표

새로운 영구 기관 출범으로 지역사회 복구와 회복탄력성 구축 노력으로 전국을 선도

10주년을 맞아 주지사 직속 폭풍회복청이 현재까지 슈퍼스톰 샌디 회복 과정에서 거둔 성과 소개

악천후로 인한 정전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190억 달러를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슈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10년을 맞아 뉴욕 주민의 주택 복구와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관인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Office of Resilient Homes and Communities)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설된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Office of Resilient Homes and Communities)은 2013년 출범하여 장기간에 걸친 뉴욕주의 슈퍼스톰 샌디 복구 노력을 관리하고 2013 재난구제지출법(Disaster Relief Appropriations Act of 2013)에 따른 연방 구제 자금 45억 달러 지출을 관리한 주지사 직속 폭풍복구청(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의 성과를 이어받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산하에 영구적 조직으로 출범하는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은 주지사 직속 폭풍복구청의 과제 포트폴리오를 이어 받아 뉴욕주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기적 복구 노력을 선도하는 한편 주 전역에서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 및 전략을 개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의 신설과 함께 우리는 향후 뉴욕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10년전 슈퍼스톰 샌디가 우리 해안을 강타하여 수많은 뉴욕 주민의 삶과 주택, 사업이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응급 대원, 강력한 지역사회 주도 계획, 파트너십 덕분에 높은 수준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 행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악천후에 대한 대응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기관 파트너, 지역 및 주정부,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뉴욕을 건설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GOSR의 슈퍼스톰 샌디 복구 노력 성과를 담은 10주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GOSR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미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 재난 복구(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Disaster Recovery, CDBG-DR) 프로그램 자금 45억 달러의 91%를 집행하여 11,000건 이상의 주택 복구 및 회복탄력성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뉴욕 전역의 소상공인 1,000명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악천후로 인한 정전 상태를 방지하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전역 전기망에 지난 10년 동안 19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러한 투자에는 롱아일랜드에 대한 49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한 공식 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은 GOSR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슈퍼스톰 샌디의 피해에서 고통받고 있는 뉴욕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주지사의 의지를 달성합니다.

- 뉴욕 주민 및 지역사회와 직접 협력하여 3,000건 이상의 주택 위치 상향 조정 등 주택 소유주들이 11,000건 이상의 복구 및 홍수 피해 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재난 전후에 시행.
- 효과적이고 원활한 전환을 통해 응급 지원이 장기 복구로 이어져 향후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회복 과정에 장기 계획 포함.
- 뉴욕 주민을 위한 평등 추진, 뉴욕의 기후정의 워킹 그룹(Climate Justice Working Group)이 주정부의 야심찬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의 공정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소외 지역사회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재난에 취약한 뉴욕 주민을 위한 평등 추진.

Katie Brennan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악천후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구와 회복탄력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천후 당시는 물론 전후에 뉴욕 주민과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용해 평등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선진적인 생각으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비전을 제시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uthAnne Visnauska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뉴욕이 큰 피해를 입은 이후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악천후의 피해와 전세계 기후 온난화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기후 변화 대응의 전국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은 우리가 뉴욕 주민을 위한 안전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고 강력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 주거, 인프라, 종합적인 대비 체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하여 우리가 뉴욕을 위해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존부(DEC) 커미셔너 겸 기후행동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 공동위원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악천후와 슈퍼스톰 샌디 등 폭풍 발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EC는 모든 정부 수준에서 파트너들이 일구어낸 모든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했으며 천연 자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따라, DEC는 이러한 복구를 계속 추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도울 수 있는 입증된 조치를 재건하고, 지역사회가 다음 대형 폭풍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regory W. Meek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시간을 갖고 10년전 슈퍼스톰 샌디가 뉴욕과 로커웨이를 강타해 이로 인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추모해야 합니다. 뉴욕 재건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일구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복구회복력청의 신설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모든 정부 수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seph Addabb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전, 슈퍼스톰 샌디는 뉴욕 전역을 강타해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 이웃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기업이 무너졌으며 공공 공간은 사라졌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폭풍의 피해가 남아 있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했던 폭풍 이후의 날들입니다. 폭풍이 발생한 이후부터 우리는 주정부 수준에서 해안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의 수역에 폭풍 피해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향후 폭풍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청정 에너지 주를 건설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가 받은 피해와 폭풍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서로를 위해 함께 연대한 지역사회의 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GOSR의 노력을 이어받아 새롭게 주택 지역사회 보호청을 신설하여 향후 폭풍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tacey Pheffer Ama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폭풍복구청의 신설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샌디 10주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과를 되새기고 특히 사우스 퀸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회복탄력성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구청은 폭풍 복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Donovan Richards 퀸즈 행정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스톰 샌디로 인해 여기 퀸즈는 물론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은 것이 10년 전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반드시 샌디와 같은 폭풍이 향후 닥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주정부 기관의 설치를 통해 저는 뉴욕이 자연 재해에 대해 더 강력한 대비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나 뉴욕이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Melinda Katz 퀸즈 지역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스톰 샌디는 퀸즈 카운티에 전례 없는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고 폭풍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악천후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인프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폭풍 복구 및 해안 회복탄력성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새로운 주정부 기관의 설치로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Leslie Mulling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슈퍼스톰 샌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 좋게도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리더인 **Kathy Hochul** 주지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의 공포와 사상자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회복탄력성, 재건, 복구를 위한 노력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폭풍 발생 10주년을 맞이하여 공개된 보고서에는 GOSR가 뉴욕의 회복을 위해 다음의 부문에서 진행 또는 완료한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복구

현재 완료된 주택소유주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에게 직접 12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하여, 3,500개 주택 위치 상향 조정 및 400건 이상의 재건 등 11,000건 이상의 주택 복구 및 회복 탄력성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라이징 바이아웃 프로그램(NY Rising Buyout Program)은 성공적으로 스테튼 아일랜드 423건, 롱아일랜드 130건, 업스테이트 62건 등 폭풍으로 인해 무너진 부지 615건을 자연으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천연 보호막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재건이 아니라 이주를 원하는 뉴욕 주민에게 2억 7,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뉴욕주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천연 부지는 우수를 흡수하고 홍수를 완화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오염을 완화하며 대기 질을 개선합니다. 현재까지 이번 프로그램은 스테튼 아일랜드 해양 방벽(Staten Island Sea Wall) 프로젝트, 스테튼 아일랜드 청소년 축구 리그(Staten Island Youth Soccer League) 등 롱아일랜드의 다양한 지방 파트너들에게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재건 인프라

GOSR의 뉴욕 라이징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Y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장기 복구 및 회복탄력성 구축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슈퍼스톰 샌디,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트로피컬 스톰 리(Tropical Storm Lee) 이후 발생한 특정 수요 및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 지방 정부, 비영리 파트너와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총 3억 600만 달러 규모의 200개 이상의 회복탄력성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완료했으며, 현재 건설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80건 이상입니다.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향후 폭풍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현재 로커웨이와 브리지 포인트에서 뉴욕 라이징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이 투자한 4,5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다음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 130억 달러, 파 로커웨이의 비영리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준비 훈련
2. 240만 달러, 영 이스라엘 웨이브크레스트 앤 베이스워터(Young Israel of Wavecrest and Bayswater), 아다보 헬스 센터(Addabbo Health Center), 세인트 존스 성공회 병원(St. John's Episcopal Hospital) 등 파 로커웨이 주요 지역사회 시설의 예비 전력 및 회복탄력성 업그레이드
3. 450만 달러, 다운타운 파 로커웨이 스트리트스케이프(Downtown Far Rockaway Streetscape)를 통한 배수 시스템 개선 및 다운타운 접근성 강화
4. 1,170만 달러, 브리지 포인트 지역사회 전역의 배수 및 우수 관리
5. 인프라 프로그램(Infrastructure Program)을 통해 주정부는 총 2억 1,84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12건 완료

설계 재건

2014년 6월,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혁신적인 설계 재건(Rebuild By Design) 공모전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모전을 통해 부문간 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이 복구 및 회복탄력성 노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복구청이 진행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리빙 위드 더 베이(Living with the Bay) 이니셔티브는 폭풍 해일로 인한 손상을 완화하고 우수를 관리하여 서식지와 수질을 개선하고 교육 및 증대된 레크레이션 기회를 통해 나소 카운티 밀강(Mill River)에 대한 접근성을 늘림으로써 밀강(Mill River)과 만 주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OSR는 여덟 개의 리빙 브레이크워터스(Living Breakwaters) 중 2개를 완료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토튼빌 해안에서 진행한 1억 700만 달러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리빙 브레이크워터스는 혁신적인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로 폭풍으로 인한 침식과 손상을 완화하고, 라리탄 베이(Raritan Bay)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며, 인근 수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스테튼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현재 완료된 뉴욕 라이징 중소기업 프로그램(NY Rising Small Business Program)은 폭풍 피해를 입은 주 전역의 중소기업의 복구, 재건, 자본을 촉진하여 뉴욕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총 5,200만 달러를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GOSR의 웹사이트 www.storm-recover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풍 회복탄력성 및 전력망 강화 성과

10주년 보고서와 더불어, Hochul 주지사는 과거 10년 동안 전력망 강화에 19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투자에는 폭풍 대응 강화, 회복탄력성, 신뢰성 이니셔티브, 녹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49억 달러를 롱아일랜드 전력망에 투자하여 폭풍 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고객 정전 발생을 35% 감소시켰습니다.
- 4,900만 달러를 폭풍 대응 강화에 투자하고 세 곳의 로커웨이 서브스테이션(아르벤, 파 로커웨이, 로커웨이 비치 서브스테이션) 등의 위치를 500년 홍수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여덟 개의 로커웨이 서킷에 투자하여 강력한 전봇대와 전선을 설치하고 다시 설계한 조은 프로파일을 배치하여 나무가 쓰러지는 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하는 등 폭풍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뉴욕주 및 뉴욕시와 협력하여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6억 달러 규모의 로커웨이 및 자마이카 베이 해안 폭풍 위험 완화 프로젝트(Rockaway and Jamaica Bay Coastal Storm Risk Reduction Project)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로커웨이 반도의 아틀란틱 및 자마이카 베이에서 건설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 대서양 해안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내부 강철과 암석으로 사구를 강화하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공사를 비롯해, 해안의 모래를 붙잡아두고 파도에 견딜 수 있게 해주는 19개의 스톤 그로인을 신규 설치 또는 재건, 공공 접근성 지원을 위한 사구 크로싱 건축물 신규 설치 등이 있습니다.

- 자마이카 베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일련의 소형 레비, 홍수 방지벽, 기타 햄멜스, 에지미어, 아르벤 지역 등 저지대 지역의 빈번한 홍수 대응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복구 및 회복탄력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연방 투자 총 50억 달러 규모가 넘는 프로젝트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폭풍과 홍수로 인한 장기 보호를 제공하는 추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지방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우스 쇼어 수질복구 시설 회복탄력성 재건(South Shore Water Reclamation Facility Resilient Rebuild, 8억 3,000만 달러) - 500년 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과거 베이 파크 폐수 처리 플랜트(Bay Park Waste Water Treatment Plant) 회복탄력성 재건 완료.
- 베이 파크 수송 프로젝트(Bay Park Conveyance Project, 4억 3,900만 달러)는 폐수를 해양으로 보내 롱아일랜드 웨스턴 베이스(Western Bays)의 천연 홍수 보호를 강화합니다.
- 롱 비치 폐수 인터커넥트(Long Beach Waste Water Interconnect, 1억 3,000만 달러)는 롱비치 기존 폐수 처리 플랜트를 전환 및 강화합니다.
- 서퍽 카운티 해안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Suffolk County Coastal Resiliency Initiative, 4억 808만 달러)는 매스틱-설리 베이비론의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화 및 하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 패치고그 리버 워터셰드 프로젝트(Patchogue River Watershed Project, 2,100만 달러)는 강의 워터셰드와 그레이트 사우스 베이(Great South Bay)의 약 500개 가정을 연결하여 질소 배출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해안을 만들어 홍수 피해를 완화합니다.

슈퍼스톰 샌디를 포함해 뉴욕주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령 재난 선포(Presidential Disaster Declarations) 13개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은 약 270억 달러의 연방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기금을 지원받아 부서진 인프라를 복구했을 뿐 아니라, 14억 달러의 연방 위험 완화(Hazard Mitigation) 기금을 지원받아 장기 위험 완화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계속 맡았으며 다음과 같이 허리케인 샌디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요 회복탄력성 및 복구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공공 지원 보조금

- **뉴욕시 주택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 29억 달러** - 홍수 방지 구조에 위치한 새로운 냉방 및 온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될 NYCHA 개발 20개 등 5개 행정자치구 전역에서 35개의 피해 주거 단지에 복구, 회복, 폭풍 보호, 위험 완화 조치 시행. 추가적으로 정전에 대비하여 201개 건물에 영구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 - 14억 달러** -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브스테이션 위치 상향 조정 또는 이전, 피해 전송선 강화 등 주요 인프라 복구, 전력 공급 시스템 전반 피해 완화.

위험 완화

-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Y/NJ) 라구아디아 홍수 관리(LaGuardia Flood Control, 퀸즈) - 4,060만 달러** - 동부 라이트닝 볼트 및 서브스테이션 주위에 홍수방지벽 설치 및 발전기 설치, 우수 펌프 스테이션 지원을 위한 배수구 추가.
- **뉴욕뉴저지 항만청 JFK 공항 타이드 게이트(JFK Airport Tide Gates)(퀸즈) - 600만 달러** - 공항 북서쪽 끝에 다수의 역류 예방 장치 설치.
- **서퍽 카운티 해안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Suffolk County Coastal Resiliency Initiative) - 4억 900만 달러** - 정화 시스템과 세스플에서 최대 5,559개 구역 제거, 새로운 하수 시스템 연결, 포지 리버(Forge River) 워터셰드에 최첨단 폐수 처리 시설 신규 건설.
- **나소 카운티 웨스턴 베이스 회복탄력성 프로젝트(Nassau County Western Bays Resiliency Project) - 5억 3,200만 달러** - 웨스턴 베이스의 수질 개선을 위해 이미 오염된 지역의 질소 최대 90% 제거. 베이 파크 신규 펌프 스테이션 건설, 베이 파크에서 선라이즈 하이웨이(Sunrise Highway)까지 마이크로 터널을 통한 2 마일 규모의 포스 메인 설치, 선라이즈 하이웨이를 따라 7.3 마일 규모의 아쿠덕트 목적 변경, 선라이즈 하이웨이에서 세다 크릭(Cedar Creek)까지 1.6 마일 규모의 메인 포스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